

[별첨 1. 포상 신청 인물 소개]

이번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한 독립운동가 중에는 일제 말 전시체제기에 항일비밀결사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주목된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대륙침략을 본격화한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을 병참기지화하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인적·물적 통제와 수탈을 자행했다. 아시아, 태평양 전역으로 전쟁이 확대되면서 전쟁동원은 총력전의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민족말살정책도 더욱 노골화하였다.

가혹한 식민지배 상황이었지만 일제의 발악이 가중될수록 다른 한편으로 조국독립의 가능성도 높아져갔다. 일제의 패전은 곧 조선의 독립으로 이어진다는 희망이었다. 국내외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도 ‘일제 패망’을 기대하는 기류가 형성됐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국, 소련 등 열강이 전쟁에 개입하리란 전망이 확산했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시작될 무렵에는 일제의 패전을 전망하며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항일운동에 나서는 움직임이 표출됐다.

안용갑과 신규식은 일본에서 유학하던 중 비밀결사를 조직했다.

일본 도쿄에서 주오대학(中央大學) 법과에 재학 중이던 안용갑은 1941년 김규엽(金圭燁) 등과 함께 지하학생조직을 결성했다. 안용갑은 “3년간의 도쿄 유학 생활을 하며 조선민족이 나가야 할 길을 알게 됐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단결해 일본인의 속박에서 벗어나 명랑한 조선인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기화된 전쟁으로 일본이 결국 패전할 것을 전망하며, 조국 독립 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안용갑은 1943년 4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신규식은 일본 유학 중 학비 조달을 위해 요코하마의 목장에서 일했다. 이때 김용규(金容珪) 등과 함께 비밀결사를 조직했다. 이들은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학생들을 규합해 조선 민중의 민족의식을 계몽하고 조직의 확대 강화를 논의했다. 일제는 이들을 ‘요코하마그룹’이라 불렀다. 신규식은 1943년 12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요코하마지방법재판소에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는 안용갑에 대해 “민족의식이 농후해서 조선독립을 몽상하고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실천운동에 나설 우려가 있다”, 신규식에 대해서는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 및 조선민족의 해방을 기하고자 실천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는 시찰요점을 기록했다.

국내에도 일제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장기룡과 황병수는 전라북도 공립국민학교 촉탁교원으로 근무하며 1940년 11월부터 1941년 10월까지 만나 조선 독립을 의논했다. 이들은 ‘일본과 소련의 전쟁이 곧 개시할 것이다. 중일전쟁으로 상당히 약해진 일본은 패전할 것이니, 그때가 조선 독립의 호기다. 일본이 내선일체를 강조하지만,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는 조선인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논의를 계속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훌륭한 조선인이 될 것을 훈시했다. 일제 경찰에 체포된 이들은 1943년 1월 치안유지법 및 육군형법·해군형법 위반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에는 장기룡과 황병수에 대해 ‘민족·공산주의 사상을 품고 불온·과격할 언동을 하며 타인을 사주·선동할 우려가 있다’는 시찰요점이 기록돼 있다.

전기배와 김종철은 1941년 12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들의 활동에 대해 일제가 붙인 이름은 ‘불온기도(不穩企圖) 사건’이었다. 1941년 1월 일본에 유학하다가 돌아온 고종근(高鍾根)과 이리농림학교에 다니던 한대석(韓大錫), 김종철, 그리고 전기배는 ‘조선인의 진정한 행복은 독립에 있을 뿐’이란 생각에 공감하며 구체적 독립운동 방안을 협의했다. 이들은 만주국이 소련에 가까이 있으므로 무기 입수가 쉬우니 장개석이나 소련의 원조를 받아 독립운동에 나서자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고종근은 애족장(1990), 한대석은 대통령표창(1992)을 이미 받았다.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명단〉

1	조옥초	趙玉肖	14	김운선	金雲善
2	임동춘	林東春	15	이재중	李在中
3	김기범	金基範	16	이계손	李桂孫
4	오대진	吳大進	17	김한섭	金漢燮
5	김유환	金瑬煥	18	이기택	李起澤
6	이익우	李益雨	19	전기배	田起培
7	고영희	高永禧	20	김종철	金鍾喆
8	박찬규	朴燦圭	21	김태순	金兌淳
9	정후균	鄭後均	22	오치옥	吳治玉
10	정병직	鄭炳直	23	안용갑	安鏞甲
11	신동호	申東浩	24	신규식	申奎植
12	장기룡	張基龍	25	문병국	文炳國
13	박판동	朴判同	26	황병수	黃炳洙